

‘감’ 잡은 브룩스... ‘감’ 좋은 최형우·김선빈

KIA, 자체 연습경기...브룩스, 4이닝 제구·위기관리능력 합격점 김선빈 3안타·최형우 2안타 1타점...내일 KT와 수원서 연습경기

브룩스의 2021시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KIA 타이거즈가 16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치렀다. 브룩스가 화이트팀 선발로 나서 캠프 두 번째 실전을 소화했다. 지난 10일 한화이글스와의 연습경기에서 44개의 공을 던지며 2.2이닝을 소화했던 브룩스는 이번에는 60구 4이닝으로 페이스를 올렸다. 브룩스는 1번 김영환에게 2구째 3루수 옆 빠지는 좌전안타를 허용한 뒤 2번 김연준에게 볼 두개를 연달아 던졌다. 9구 승부 끝에 좌익수 플라이를 잡아낸 브룩스는 박민에게는 공 2개를 던져 유격수 직선타를 만들었다. 스타트를 끊은 주자까지 동시에 두 개의 아웃카운트가 올라갔다. 1회 13개의 공을 던지며 몸을 풀 브룩스는 연속 삼진으로 두 번째 이닝을 열었다. 권혁경을 1루 땅볼로 잡아내면서 삼자범퇴. 3회 1사에서 2루수 김선빈의 포구 실책으로 주

자를 내보냈지만, 박정우와 김영환을 각각 좌익수 플라이와 2루 땅볼로 처리하면서 이닝을 정리했다. 4회 선두타자 김연준에게 볼 3개를 연달아 던진 브룩스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3루수 파울 플라이로 아웃카운트를 추가했다. 박민을 상대로 세 번째 탈삼진을 뽑아낸 브룩스는 유민상에게 중전안타는 맞았지만, 장영석을 우익수 플라이로 돌려세우고 60구에서 등판을 마무리했다. 슬라이더, 커터, 체인지업, 투심을 구사한 브룩스의 직구 최고 구속은 149km. 블랙팀 선발로 나선 김현수는 15타자를 상대해 6피안타 1탈삼진 2삼진을 기록했다.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등 52개의 공을 던졌고, 최고 스피드는 141km를 찍었다. 화이트팀의 ‘미리보는 개막전 라인업’에서는 2번 김선빈과 4번 최형우가 눈에 띄었다. 윌리엄스 감독은 이날 최원준(우익수)을 리드

오프로해서 김선빈(2루수)-터커(1루수)-최형우(지명타자)-나지완(좌익수)-김민식(포수)-류지혁(3루수)-이창진(중견수)-박찬호(유격수)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김선빈은 1회 무사 1루에서 김현수를 상대로 중전안타를 기록한 뒤 3회, 6회에도 중야를 뚫으면서 3안타를 장식했다. 1회 1사 1:3루에서 첫 타석에 들어선 최형우는 초구를 외야로 보내면서 희생플라이를 기록했다. 첫 타석에서 타점을 올린 최형우는 이어진 두 타석에서는 모두 우전안타를 날리면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다. 퓨처스 선수단으로 꾸려진 블랙팀에서는 박정우의 활약이 눈부셨다. 9번 타자 겸 중견수로 나온 박정우는 자신의 강점인 수비에서는 물론 공격, 주루에서도 인상적인 활약을 했다. 5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측 담장을 넘기며 생애 첫 홈런을 만든 박정우는 8회 내야안타 뒤 도루까지 기록했다. 한편 17일 수원으로 이동하는 KIA는 18일 KT위즈를 상대로 시범경기에서 앞서 마지막 연습경기를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브룩스가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자체 연습경기에서 화이트팀 선발로 나와 투구 동작을 취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맷 감독, 사비로 상금... 박정우, 못잇을 첫 홈런

KIA 퓨처스 블랙팀 연습경기 5회 김현준 상대 투런포 안타·도루 후 수비서도 활약 “2군서 독보적 활약 후 1군 도전”

“KIA 입단 후 처음으로 내 마음대로 야구를 했다”며 ‘홈런타자’가 웃었다. KIA 타이거즈는 1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자체 연습경기를 진행했다. 화이트팀 브룩스와 블랙팀 김현수 두 선발에 눈길이 쏠렸던 경기, 타석에서 MVP는 퓨처스 선수단으로 꾸려진 블랙팀의 9번 타자 박정우였다. 경기가 끝난 뒤 윌리엄스 감독이 사비로 상금까지 전달할 정도로 박정우의 활약은 돋보였다. 3회초 1사 1루에서 브룩스를 상대로 첫 타석에 선 박정우는 좌측으로 공을 보냈다. 좌익수 플라이로 끝났지만 5회 두 번째 타석은 달랐다. 0-2로 뒤진 1사 2루에서 김현준과 대결한 박정우는 우측 담장을 넘기며 승부를 2-2 원점으로 되돌렸다. 아마 시절에도 기록하지 못했던 박정우의 첫 홈런이었다. 박정우는 8회 세 번째 타석에서 2루 내야안타로 출루한 뒤 도루까지 기록했다. 10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볼넷으로 걸어나간 뒤 폭투 때 2루까지 달렸다. 자신의 장점인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박정우는 “치고나서 홈런인 줄도 몰랐는데 둘



첫 홈런볼을 들고 포즈를 취한 박정우. 라고 해서 들었다”며 “펜스 앞에서 잡힐 줄 알았는데 바람 타고 넘어갔다. 공만 때린다고 생각했는데 슬라이더가 앞에서 맞았다”고 웃었다. 2017년 덕수고를 졸업하고 프로에 뛰어들 5년 차 박정우는 아직 1군 경험이 없다.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뒤 의욕이 넘쳐 허벅지 부상을 입어 고생도 했다. 지난 7일 자체 연습경기에서는 열이 나 예정됐던 출전이 불발되기도 했었던 만큼 이번 경기가 박정우에게는 간절했다. 박정우는 “1군이랑 시합이니까 보여줘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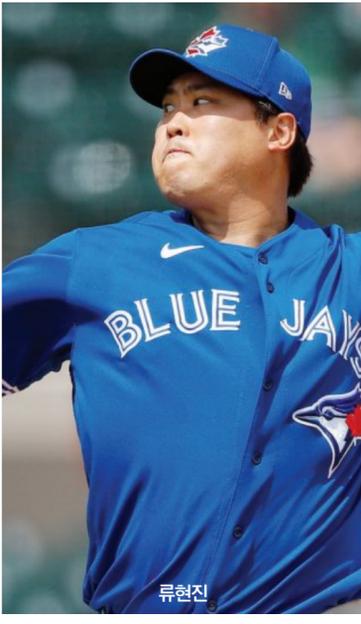
는 마음이 있었다. 중심에 잘 맞았고 운이 좋았다. 수비에 자신 있어서 수비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 잘됐다”며 “2군에 이런 선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 내 친구들 (기움 이정후·김재웅·김혜성)은 다 잘 해서 TV를 보면서 자존심이 상했다. 반이라도 따라가고 싶은 마음에 의욕이 앞서 부상을 입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었는데 프로 와서 오늘 처음 뜻대로 됐다”고 이야기했다. 결과도 좋았지만 뛰어난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했다는 점도 박정우에게는 큰 소득이다. 박정우는 “브룩스 공이 너무 빨라서 직구인지 변화구인지도 모르고 들렸는데 중심에 맞았다. 처음 본 공이었다.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언급했다. ‘깜짝 활약’으로 윌리엄스 감독에게 이름은 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박정우는 힘을 키워 1군 경쟁을 하겠다는 각오다. 박정우는 “아직 한참 멀었다. 형들과 힘에서 많이 차이 나고 피지컬도 부족하다. 빠르다고 하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스피드는 아니어서 힘을 더 키워야 한다”며 “수비와 주루플레이는 자신 있다. 뛰어다니기를 좋아해서 공 쫓아가는 것과 공 던지는 것도 장점이다”고 말했다. 또 “서동욱, 정성훈 코치님과 타격폼 바꿔가면서 타이밍 잡는 법을 배우고 있다. 다리 들고 치다가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잡고 있다”며 “2군에서 독보적으로 잘하는 게 먼저다. 신고 선수이기 때문에 더 잘해서 (정식) 등번호를 받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

류현진, 두번 실수는 없었다

디트로이트와 시범경기 4이닝 무실점 선발승...개막전 선발 유력

류현진(34·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완벽한 제구로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타선을 제압하며, 2021년 시범경기 첫 승리를 쟁겼다. 구단이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개막전(한국시간 4월 2일 뉴욕 양키스전) 선발이 유력한 류현진은 시범경기부터 ‘에이스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류현진은 16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클랜드 퍼블릭 필드 옛 조커 머천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와의 시범경기에 선발 등판해 4이닝 동안 2안타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호투했다. 삼진은 4개를 잡았고, 사사구를 한 개도 허용하지 않았다. 팀이 4-0으로 승리하면서 류현진은 올해 첫 선발승도 거뒀다. 이날 류현진은 공 49개로 4이닝을 채웠다. 직구 최고 구속 시속 148km였다. /연합뉴스

베이스볼 서번트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직구 18개, 커터 12개, 체인지업 12개, 커브 7개를 던졌다. 류현진은 다양한 구종으로, 상하좌우를 모두 활용하는 완벽한 제구를 뽐냈다. 류현진은 1회 첫 타자 빅터 레예스에게 초구 시속 143km의 낮은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더니, 4구째 시속 136km 날카로운 커터로 투킹 삼진 처리했다. 제이머 칸델라리오에게는 볼 카운트 2볼에 몰렸지만 시속 147km, 시속 148km 직구로 2볼-2스트라이크를 만든 뒤 시속 118km짜리 푹 떨어지는 커브로 헛스윙을 끌어냈다. 류현진은 3회 윌리 카스트로와 노마르 마자라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무사 1, 2루에 몰렸다. 그러나 아이작 파데스를 조구 직구로 평범한 우익수 뜬공으로 돌려세우며 한숨을 돌렸다. 류현진은 레예스를 시속 128km 체인지업으로 헛스윙 삼진 처리한 뒤, 씩 웃었다. /연합뉴스



류현진

미셸 위, 필드 복귀

결혼·출산으로 2년 공백...26일 LPGA 기아 클래식 출전 신청

결혼과 출산 등으로 2년 가까이 필드를 떠났던 재미 교포 선수 미셸 위 웨스트(한국 이름 위성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복귀가 예상된다. 위 웨스트가 오는 26일(한국시간) 개막하는 LPGA투어 기아 클래식에 출전 신청을 낸 사실이 확인됐다고 16일 골프위크가 보도했다. 기아 클래식에 출전 신청을 낸 선수는 지난 13일까지는 취소할 수 있었지만, 위 웨스트는 여전히 출전 선수 명단에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다음 달 2일부터 열리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 대회 ANA 인스피레이션 출전 선수 명단에도 위 웨스트의 이름은 올라있다. ANA 인스피레이션 출전 선수는 18일 확정된다. 위 웨스트는 2019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한 뒤 손목 부상 치료와 재활을 위해 당분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LPGA투어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는 2019년 8월 미국프로농구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임원인 조니 웨스트와 결혼했고, 지난해 6월에는 딸을 낳았다. 위 웨스트는 지난해 출산 이후 “팔에 게 임마가 LPGA투어에서 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투어 복귀를 암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또 유모차에 딸을 얹혀놓고 연습장에서 스윙하는 모습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미셸 위